

동북아시아 거점도시! 안산, IT밸리로 자리잡은 도시! 안양

살아 숨쉬는 문화를 자랑하는 안산은 기업하기 좋은 디지털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춘 경제도시로 부각되고 있음과 동시에 향후 동북아시아 거점도시로 그 역할을 다할 곳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안양은 국내 최고의 IT 밸리로써, 자원봉사 최고의 도시로 거듭난다.



안산·안양의 산업구조

향후 동북아시아 거점도시로 성장할 안산은 대부분의 기업이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 집중되어 있다. 2003년 8월 현재 이 두 곳의 평균 가동되는 업체수는 반월공단이 2,099개 업체로 77.8%(전월과 동일)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시화공단은 1,094개 업체로 75.9%(전월대비 증가)가 가동중에 있다. 이 수치는 국가산업단지 8월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발표, 2003. 10. 1) 평균 가동률이 전월보다 2.7%p 증가한 평균 81.0%임을 볼 때 안산지역의 공장가동률은 전국산업단지의 평균보다 아직까지는 낮은 것이다.

공장 가동률이 낮다보니 고용실태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동률이 낮은 시화공단은 전월보다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인력이 소폭 증가한 14,019명이 시화공단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조정 및 이직 등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나타난 반월공단은 69,870명으로 집계되었다.

안양지역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월대비 감소추세에 있다. 제조업의 가동율은 노사분규 증가로 3/4분기는 전분기보다 2.1%가 감소한 82.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지수에 있어서도 80%로 3.0% 감소하고 있다.

태양금속공업(주) - 함께하는 안전으로 대한민국 생산혁신 기업으로 거듭나

안산하면 반월과 시화단지가 있다. 그 중 시화단지에서 2003년도 『대한민국 생산혁신 대상』 수상기업이 탄생했다.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한 태양금속공업(주)(황규홍 사장)이다.

1954년도에 설립한 태양금속공업(주)는 자동차 볼트·너트 전문생산업체이다. 특히, 냉간단조 부문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로서 장기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태양금속공업(주)에서는 어떠한 안전활동을 전개하는지 민광희 안전환경과 차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본다.

민광희 차장은 먼저 전 현대자동차에서 임원으로 있기 전에 안전환경팀장직을 맡은 바 있다는 황규홍 사장의 안전 마인드에 대해 말한다.

직원 모두가 태양가족이라는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황규홍 사장은 환경안전과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이곳에서는 강압적이지 않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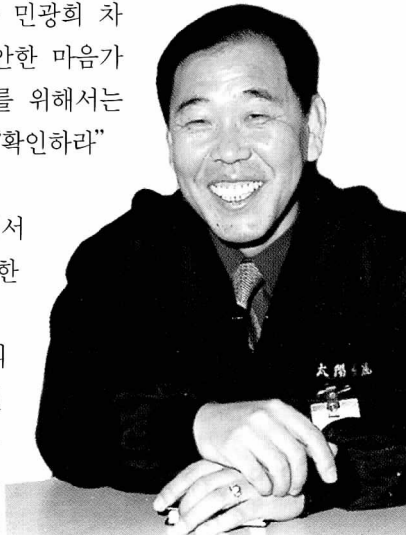
태양금속공업(주)는 3D업종으로 신규채용자의 이직율이 높다. 그에 반해 50년이 넘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그래서 신·구 근로자의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안전환경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인간의 유대관계를 안전의 최고 우선과제로 추진하는 태양금속공업(주)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완장을 차지 않는다. 완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권위적으로 인식하기 쉬워, 안전관리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안전은 완장을 찬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함께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이곳에서는 완장을 차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근로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민광희 차장은 안전은 편안함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편안한 마음가짐과 안전수칙 준수를 우선으로 손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신규 근로자들에게 2가지를 강조하는데 “확인하라”와 “지켜라”이다.

끝으로, 민광희 차장은 태양금속공업(주)에서 하고 있는 제안제도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모든 회사에서 인사사고과 점수에 반영되는 제안제도이다. 이 제도에 안전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안전에 대한 개선사항이 다른 제안사항보다 부여되는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중



▲ 민광희 차장

하나이다.

다음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근골격계 질환관련 사항이다. 자체적으로 건강관리실에 각종 물리치료기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정의 자동화를 추진 중에 있고,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발 빠르게 전개하는 안전활동을 보여준다.

한솔건설(주) 한솔센트럴파크타워 현장 - 감성안전을 추구하는 현장! 무재해 현장!

4년간 무재해를 이어가는 기업이 있다. 12년의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안전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한솔건설(주)이다. 그 중 한솔건설(주)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감성안전의 시범현장이 있어 찾았다.

한솔센트럴파크타워 신축공사현장(차승규 소장)이 오늘 찾은 현장이다. 이곳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두선 안전과장을 만나 이곳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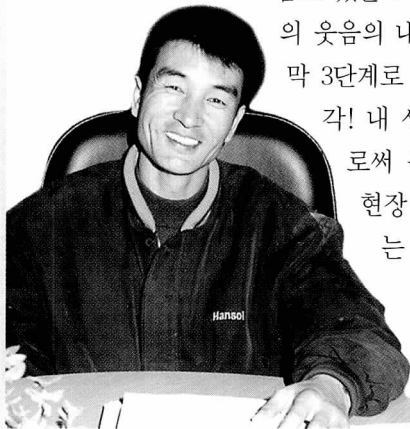
최두선 안전과장은 먼저 감성안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안전이란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을 시작으로 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4M은 품질관리에서 응용된 것이고, 그에 반해 안전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4M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근로자의 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감성안전인 것이라고 소개한다.

감성안전 시범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곳 현장에서는 먼저 금년 한해동안은 1단계로 「정(情)만들기」에 돌입했다. 조건없이 베풀기! 서로 존중하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1단계가 정착된 후 내년부터는 즐거운 마음, 전체의 웃음의 내용이 담긴 2단계 「WIN-WIN」이 전개되며, 마지막 3단계로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의 「아집버리기」를 전개함으로써 무재해 현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에서부터 자율안전을 추구하는 현대에 맞는 안전기법인 것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현장 곳곳에 부착한 안전표지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최두선 안전과장은 부착된 안전표지를 보고 실천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보고, 보이는 안전을 전개한다



▲ 최두선 과장

는 계획으로 화장실, 휴게실 등에 계몽문구를 먼저 부착한다. 글은 관리감독자의 말보다 부드럽고, 근로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밖에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안전시설, 각종 보호구착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내가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요소요소에 설치해 주는 배려하는 안전을 전개할 때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곳 현장은 현재 무재해 1.7배를 달성하고 있다. 내년 1/4분기에 준공을 앞둔 당 현장은 무재해 준공으로 이어진다면 2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모든 가족들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무재해 준공일 것이다. 감성안전 시범현장으로 운영되는 이 곳 현장에서 감성안전의 꽃을 피워, 무재해 준공을 넘어, 계속되는 한솔건설 무재해에 한솔센트럴파크타워 신축공사 현장이 앞장서길 기원한다.

이지역의 재난방지시스템

안산과 안양지역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축으로는 노동부를 비롯해 민간 재해예방단체로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가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규제완화 등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두 지역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03년 9월말 현재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관할지역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9월말 현재 1.0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는 안산지역은 전년동기 0.85보다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현재 271,916명의 산업근로자 중 2,730명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고 있고, 이중 직업병 관련 재해자가 153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2%가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관할지역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현황은 10월말 현재 221,954명 중 1,718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0.77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재해율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산지역의 안전관리신고센터를 들 수 있다. 이 센터는 재난의 사전감지와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로, 평소 생활 주변에서 안전에 위협하는 시설(건축물, 축대, 옹벽) 등을 신고함으로써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최종덕 기자〉

